

삼진 잡고 환호하는 오타니, 호투에도 '패전'

등록 2026.04.29 14:21:06



[로스앤젤레스=AP/뉴시스] LA 다저스 선발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28일(현지 시간)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5회 초, 상대 타자 아구스틴 라미레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환호하고 있다. 오타니는 6이닝 2실점(1자책) 5피안타 4사사구 9탈삼진으로 호투했으나, 팀이 1-2로 지면서 패전투수가 됐다. 2026.04.29.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